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3면
"분당과정 상처 대선승리로 치유해야"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1년 12월 24일 금요일 (음 11월 21일) 제292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전북도는 23일 송하진 도지사와 올레크 코제마코 연해주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19년 교류의향서를 체결한 이후 약 2년 동안 교류를 추진해 온 러시아 연해주와 행정, 경제, 문화, 스포츠, 관광 등 전반에 걸친 협력에 합의하는 내용의 우호교류 협약을 온라인으로 체결했다.

국제교류지역 북방으로 확장

도, 러시아 연해주와 농업·문화 등 협력

2만여고려인 정체성 확립 전통문화 연수지원

전북도가 정부의 신북방정책 중심지역인 러시아 연해주(Primorsky Kray)와 우호협약을 체결, 실질적 교류 추진에 나선다.

도는 23일 송하진 도지사와 올레크 코제마코 연해주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19년 교류의향서를 체결한 이후 약 2년 동안 교류를 추진해 온 러시아 연해주와 행정, 경제, 문화, 스포츠, 관광 등 전반에 걸친 협력에 합의하는 내용의 우호교류 협약을 온라인으로 체결했다.

양 지역간 교류는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전북도 중장기 국제교류 확대 계획 연계로 시작돼, 지난 2018년 창설한 제1회 한·러 지방정부 협력포럼에 전북도가 공식 참가하면서 러시아와의 교류 확대를 본격적으로 검토했다.

도는 이후 주력산업을 비롯해 공통분야, 시너지 효과, 발전 가능성 등을 분석한 뒤, 연해주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교류를 추진하게 됐다.

행정중심도시 블라디보스토크가 있는 연해주는 신북방정책의 중심지역이자 남·북·중·러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로, 특히 무역과 관광 분야에 있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다.

천연가스를 비롯해 농업, 수산업, 에너지 재활용등 9개의 키워드로 추진되는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한·러 경제협력산업단지가 연해주에 조성 중에 있어 산업 인프라 협력 및 확대가 기대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에, 전북도와 연해주는 이번 협약을 통해 농업, 문화관광, 에너지, 경제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농업과 관광분야는 지난 7월 2일 양 지역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 간 제1회 세미나를 개최해 양 지역간 교류가 가능한 분야와 방안에 대해 논의를 벌였었다.

우선 공통관심사인 농업분야의 기관, 학교, 기업간 세미나 개최 및 특히, 양 지역 대표 농업박람회(달아그로 농업박람회, 발효식품엑스포)에 지역 기업 및 전문가를 상호 초청하기로 하고, 관광분야는 연해주 개최 태평양 국제관광엑스포(PITE) 참석을 검토하기로 했다.

문화분야는 양 지역이 모두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도시라는 공통점에서, 전주 세계소리축제와 연해주 마린스키 극장간 상호 공연 교류추진에 합의했으며, 양 지역간 태권도 교류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경제 협력을 위해 연해주 상공회의소와 전북도간 협력체계를 구축, 스타트업 기업 간 협력 등 경제교류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북도는 연해주에 거주하는 2만여 고려인들의 권익 증진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2019년부터 연해주 거주 고려인을 대상으로 우리 도의 강점인 전통문화 보급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2019년 연해주와 교류의향서를 체결할 당시, 우스리스크 고려인 민족학교의 내부에 한지를 활용한 전통적인 분위기의 공간을 만들었고, 한국 드라마에서 늘 봐왔다던 한글 학교명이 쓰인 나무 현판을 송하진 지사 글씨로 만들어 고려인들과 작은 기념식을 열기도 했다.

도는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싶은 고려인에게 한글, 한국무용, 한식, 한지 등 전통문화 보급사업을 추진, 고려인들의 정체성 확립을 지원하고, 동시에 전북의 우수한 전통문화 홍보와 양 지역간 국제교류 추진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연해주는 정부의 신북방정책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자 농업, 에너지, 문화관광, 태권도 등 양 지역간 교류를 통한 상생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며 "한·러 경제협력 산업단지, 남·북·중·러 간 교류 등 다양한 경제교류 추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협약 체결로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계층의 교류가 이뤄져 전북도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한·러 지방외교를 추진하겠다"라며 이번 연해주와의 우호교류협약 체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유호상 기자

전북 문화 자존의 시대 '결실'

익산시, 3차 법정문화도시 지정돼… 200억 사업비 확보 내년부터 5년간 사업 본격

익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됐다. 사진은 문화도시 익산 다같이 회의 현장.

전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법정 문화도시'에 익산시가 최종 확정돼 국비 100억원을 포함한 2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지역 문화 인프라 확대가 기대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작년 2차 문화도시 완주군 지정에 이어, 익산시까지 3차 문화도시로 지정, 전북민의 특색있는 문화예술 운영 기반이 마련돼 '전북 문화 자존의 시대'를 열어가게 됐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2022년까지 4차에 걸쳐 문화도시를 지정할 계획으로, 전북에서는 2차 문화도시에 완주군이 선정돼 지원 받고 있다.

이번 지정된 익산은 '역사전통중심형' 지정분야로 세계유산도시, 대한민국 4대 고도(古都)로 대표되는 '백제'와 일제강점기 철도중심지인 '근대이리' 등 어느 시대의 역사에만 집중하지 않고 마을과 마을의 역사, 도시와 사람의 역사에 주목하며, 도시의 정체성을 재인식하겠다는 역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시는 예비사업기간 동안 지역의 문화·예술·시민단체 등 다양한 활동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익산문화도시추진위원회(위원장 성제환)'와 '문화도시시민추진단(단장 문이화)'이 주축이 돼 예비문화도시 선정 이후 워크숍과 공청회, 매월 '다같이회의'를 통해 시민들과 문화도시 추진과정을 공유해 왔다.

또한, 조성계획의 방향성 및 5개년 계획 수립, 시민 제안사업에 대한 심사와 평가, 문화도시 시민 홍보 등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에 시민들과 함께하며, 법정 문화도시 지정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김성관 도 문화예술과장은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3차 법정문화 도시에서 고배를 마신 고창군과 4차 예비문화도시에 선정된 군산시가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법정 문화도시 경험지식을 공유해 내년에 4차 법정문화도시에 선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2027년까지 탄소융복합 바이오메디컬 원스톱 생태계 구축 목표

전북도, 875억원 투자

전북도가 오는 2027년까지 '탄소융복합 바이오메디컬 One-stop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875억원을 투자한다.

도는 원천기술 장벽이 높은 인체삽입형 의료기기 등 고부가가치 탄소융복합 첨단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고자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기업육성 등 One-stop 지원체계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바이오헬스 신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산업 지도를 새롭게 그려 나간다는 복안이다.

주요 육성분야는 ▲스텐트, 카테터 등 인체삽입형 첨단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메카노바이오기술 의료기기, ▲국내 최초 탄소소재 등 신소재 적용 의료기기 개발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생체적합성 의료기기다.

도는 이미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융합연구센터'를 올해 12월에 완공했다. '탄소소재 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내년말 완공 예정으로, 1단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2단계로 메카노바이오 의료기기, 탄소 의료기기분야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도 준비 중이다.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융합연구센터(이하 센터)는 국내 유일 중재의료기기 전문 연구개발센터다.

센터는 기술 개발을 선도해 관련 기업 및 기관을 집적화하고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재의료기기는 심뇌혈관, 소화기관 등의 병변에 미세의료기기를 이용해 삽입한 뒤, 비침습적 시술을 통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도는 센터에 메카노 바이오 기술이 적용된 중재의료기기 R&D 및 기업지원을 위한 장비와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센터와 연계해 메카노바이오기술 적용 혁신의료기기 개발로 미래 첨단 중재의료기기 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추가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도는 강점이 있는 탄소산업과 연계한 신소재 의료기기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전북대학교병원에 탄소소재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를 구축해 국내 최초로 인체삽입형 탄소 소재 의료기기 개발을 추진한다.

지난 10월 설계가 완료돼 12월 중 착공, 내년 말에 완공될 예정이며, 2023년까지 제조, 평가 장비를 모두 구축할 예정이다.

탄소소재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는 주로 외과적 수술에 사용하는 관절, 척추, 치과용 임플란트 등 인체삽입을 위한 의료기기와 수술용 의료기기에 탄소 소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호상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